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0. 20.(목)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221)

초해양시대-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 해수부, 10. 25.~10. 27. 제16회 세계해양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6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2)'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6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5년간 49개국에서 808명의 연사와 5만 2천여 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초해양시대-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Ocean as Unifi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를 주제로 열리며, '태평양환경재단*(Pacific Environment)' 대표인 알렉스 레빈슨(Alex Levinson)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특별대담, 9개 주제별 분과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미국 소재 환경 비영리단체(NGO), 해운항만 산업의 탈탄소화 운동(Ports for People) 전개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비롯하여 해양환경,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가 공식 누리집(www.wof.kr)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세계해양포럼' 검색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해양과 엑스포’, ‘기후 위기와 해상도시’ 두 가지의 주제로 특별 대담도 진행된다. 특히, 첫 번째 특별 대담인 ‘해양과 엑스포’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마티아스 프랑케(Mathias Francke) 주한 칠레 대사가 김현겸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주제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 둘째날인 10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진행되는 정규 분과토론에서는 해운·항만·조선, 수산, 크루즈 등 분야별로 ▲해양산업 전반의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형 자유무역협정(Mega FTA) 추진과 세계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산 정책 방향, ▲한국형 크루즈의 가능성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기에 협력과 공존의 길도 바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바다에서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221)
<협조>	해양산업총연합회	책임자	팀장 차지혜 (051-461-4345)
		담당자	안유신 (051-461-4346)



참고 1

제16회 세계해양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1 포럼 개요

- (일시/장소) '21.10.26(화)~10.28(목),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
- (주 제) '초해양시대-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 (주최/주관) 우리부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 (사)한국해양산업협회

2 포럼 주요 일정

일자	Day 1 10월 25일(화)	Day 2 10월 26일(수)		Day 3 10월 27일(목)		
08:00~ 09:30						
09:30~ 10:00		온오프라인 등록		온오프라인 등록		
10:00~12:00		[조선·해운·항만] -Track 1- 탈탄소	[크루즈]	[KIOST 스페셜]		[해양 지수]
12:00~ 13:30		오찬		오찬		
13:30~15:00		[조선·해운·항만] -Track 2- 디지털 전환	[수산]	[해양 디자인]	[해양 인문학]	[해양정책]
15:00~15:30	[개막식과 기조] 기조연설					
15:30~16:00	[개막식과 기조] - Track 1 - 초해양시대	[조선·해운·항만] -Track 3- Wrap-up		Break (16:00~ 16:30)	Break (16:00~ 16:30)	Break (16:00~ 16:30)
16:00~16:30	해양과 엑스포					
16:30~17:00	[개막식과 기조] - Track 2 - 초해양시대			[에필로그]	[해양 스타트업] *온라인 송출	
17:00~17:30	기후위기와 해상도시					
17:30~17:40						
17:40~18:30	네트워킹 리셉션(18:15)					
18:30~19:00	2022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알렉스 레빈슨(Alex Levinson) 태평양환경재단 대표

프로필



[이력]

태평양환경재단(PE) 대표
미국 시에라클럽 환경 변호사(25년간 변호사로 활동)
전 미국 시에라클럽 선임 에너지 캠페인 이사
전 미국 시에라클럽 법률 이사

[학력]

하버드대학 졸
스탠포드대학 로스쿨 졸. 법무박사(JD)

Bio

- 태평양환경재단(Pacific Environment)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글로벌 해양환경 비정부기구(NGO)로,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하여 해양과 항만 분야에서 탈탄소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 태평양 연안 지역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형과 건강하고 탄력적인 공동체 구성이 설립 목적.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81개(2020년 1월 기준) 컨설턴트 NGO 중 하나로, 투표권은 없지만 정부대표에 상응하는 지위 확보.

- 알렉스 레빈슨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에서 오랫동안 법률자문 역할을 해왔고, 2011년 태평양환경재단(PE)에 들어와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을 지역 환경단체들과 연결해서 '법률을 통한 환경보호' 전략을 추진한 혁신가. 특히 북극 원주민 지도자들과 협력해 유엔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탈탄소 프로젝트를 여러 국가, 지역과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국제 해운의 미래를 위한 '기후탄력적 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국가, 정부, 지역사회, 단체, 투자자 등과 협력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항만도시에서 '탄소 배출 없는 항만' 조성에 앞장서는 운동 '사람을 위한 항만(Port for People)' 프로젝트를 추진.

주요활동



[사람을 위한 항만(Port for People) 프로젝트]

Port for People은 항만 탈탄소를 위한 구상 중 하나로, 깨끗하고 탄소 배출 없는 도시 허브로 만들자는 취지의 글로벌 프로젝트.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Opportunity Green, WWF México, Friends of the Earth U.S. 등이 함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중.

